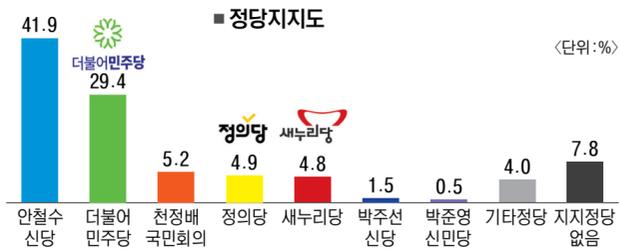


4·13 총선 '호남의 선택'이 대한민국을 바꾼다

정당 지지율 안철수 신당 41.9%·더불어민주당 29.4%
51% "현역 국회의원 안직겠다" ...역대급 물갈이 태풍 예고



광주일보-리얼미터 여론조사

"야권연대 필요" 60%

4월 총선을 앞두고 광주·전남 민심 저변에 안철수 신당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 국회의원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과반을 넘어서 역대급 '물갈이'가 예고되고 있다.

광주일보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유권자 10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관련기사 2·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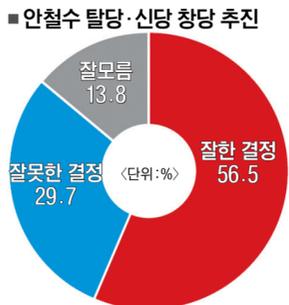
4월 총선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겠다는 질문에 아직 창당되지 않은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41.9%를 기록, 더불어민주당(옛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 29.4%에 비해 12.5%포인트나 높게 나타났다. 천정배 신당은 5.2%의 지지율을 보였으며 정의당 4.9%, 새누리당 4.8% 순으로 조사됐다.

안철수 신당의 탈당과 신당 추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6.5%가 '잘한 결정'이라고 답변했으며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은 29.7%에 그쳤다.

안철수 신당이 야권의 다른 신당 세력과 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응답은 59.9%로, 통합하지 않아야 한다는 답변(27%)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안철수 신당의 성공 조건으로는 정책 차별화(26.3%), 새 인물 영입(23.1%), 야권 신당 세력과 통합(22.6%), 호남 민심(16.4%) 등이 꼽혔다.

특히,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의 재지 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51.2%가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다시 지지하겠다'는



답변은 28.9%에 그쳐 대규모 물갈이를 예고했다.

야권 분열 원인으로서는 더불어민주당 내부 친노 세력의 패권주의 때문이라는 응답이 30.6%로 가장 높았고 공천 주도권 싸움이 28.0%,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 부족이 27.4%로 나타났다.

거대 여당에 맞서기 위해 야권 연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59.9%로, 노선과 정책이 다르므로 야권 연대가 필요 없다는 응답(27.1%)을 압도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37.5%로 선두를 달렸으며 박원순 서울시장 22.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3%,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6.7%를 기록했다.

야권 신당 추진 세력에 대한 지지도 조사에서는 안철수 신당이 46.9%로 압도적 우위를 나타냈고 천정배 신당이 9.5%, 박주선 신당이 4.2%, 박준영 신당이 2.3%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안철수 신당이 성공적 창당과 함께 야권 신당 추진 세력과 통합을 이룬다면 호남 민심의 지지를 바탕으로 야권 재편의 태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29.4%의 지지율을 유지, 혁신의 경쟁력과 총선 승리의 비전을 제시한다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광주·전남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은 지역민심의 교체 요구와 더불어민주당과 신당의 혁신 공천 경쟁이 맞물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잔인한 계절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바이칼의 새해 아침 광주일보사가 지난 2012년 창사 60주년을 계기로 시작한 '아시아 문화원류를 찾아서'는 올해 한민족의 시원으로 불리는 러시아 이르쿠츠크 주와 몽골의 신화, 민속 등 삶의 이야기를 찾아나선다. 여정에서 마주한 바이칼 호수 위로 떠오르는 일출이 새해를 열고 있다. 병신년에는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에 솟아오른 태양처럼 역경을 이겨내고, 희망을 품었으면 한다. '아시아 문화원류를 찾아서'의 이번 여정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인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라오스, 말레이시아에 이어 9번째다. /이르쿠츠크 바이칼=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아시아 문화 원류를 찾아서
제9부 몽골·브랏트 ▶11면

바이칼 호수·몽골에서 한민족 문화의 기원을 찾고 햇살처럼 머물다 바람처럼 떠나는 노마디즘을 좇다

'얼음의 바다'로 변한다. 영하 40℃에 달하는 혹한 속에서도 바이칼 알한섬의 해는 지고, 인근 민가에서는 저녁을 짓는 연기가 피어 올랐다. 2015년 12월 23일, 광주일보 취재진은 다시 광야에 섰다. <관련기사 11면> 광주일보 대기기획물 '아시아 문화원류를 찾아서' 아홉 번째 여정을 위해 바이칼 호수에 닿은 취재진을 반긴 건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강한 바람이었다. 지난 2012년 시작한 이 기획은 광주일보 창사 60주년을 기념하고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아시아 문화의 뿌리'를 조명하는 작업이다. 브랏트와 몽골의 문화 원형은 바이칼의 광풍처럼 끝없이 떠돌아야 했던 유목 생활에서 찾을 수 있다. "성을 쌓고 사는 자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 살아남는다"는 돌궐의 명장 투우쿠의 말처럼 인류는 바람처럼 떠났고, 햇살처럼 머물며 문명을 만들어 냈다. 우리의 역사는 떠남의 연속이었고, 버리지 않고 탄생했던 문화도 없었다. 인류는 가장 소중한 근거지를 버림으로써 새로운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노마디즘은 인류의 문화 원류를

찾아가는 가장 친절한 길잡이다. 한민족의 시원으로 꼽히는 바이칼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시베리아 유목민의 문화 원형 속에는 한민족의 그것이 담겨 있고, 우리 속에도 시베리아의 광야가 숨겨져 있다. 광주일보는 2016년을 맞아 '아시아 문화원류를 찾아서' 9번째 시리즈로 '바이칼·몽골·다시 광야에서' 연재를 시작한다. 바이칼 호수의 깊은 울림과 무더기로 쏟아져 내리는 몽골의 별빛 속으로 독자 여러분을 초대한다. /kroh@kwangju.co.kr

새해 특집 28면 발행

광주·전남 총선 기상도	▶4·5면	전남 친환경 디자인 박람회	▶17면
신당 주자 인터뷰 - 안철수	▶7면	丙申年 원순이에 얽힌 이야기	▶20면
파죽 50년 호남 간호사들 사연	▶12면	TV 프로그램·하이라이트	▶21·23면
3대 미래 먹거리	▶13·14·15면	신춘문예 - 단편소설 당선작	
전남의 숲 돈 버는 숲 가꾼다	▶16면	누룩을 깎다	▶24·25면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 ▲ 소설 김해숙 <장성군 황룡면> 누룩을 깎다
- ▲ 시 진혜진 <목포시 연산동> 통하얗게 길어질 때
- ▲ 동화 황성진 <서울시 봉천동> 올랜지 주스를 따르는 방법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새해 인사 나누셨나요?

손주 녀석의 깜찍한 새해 인사
선후배들이 보내온 훈훈한 덕담
새해엔 더 사랑하자는 연인의 답살멘트
올해는 꼭 한 번 보자는 친구의 전화

저마다 다르지만 모두 다 행복한 표정으로
그렇게 2016년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